

‘治未病者’ 謂 ‘聖人’

遲華基

山東中醫藥大學

‘聖人’, ‘上工’은 고도로 수양된 醫學理論家와 臨床家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內經』의 작자는 반복해서 ‘治未病’의 중요성을 논증하면서, ‘治未病’을 잘하는 의사를 품격이 높은 의사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가장 선진적인 醫學思想으로, 현재까지 衛生방면에 있어서 주요 방침이 되어왔고, ‘豫防爲主’(즉, ‘治未病’)의 방면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미래의 衛生방면에 있어서의 주요목표는 ‘豫防爲主’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가 진보되고 과학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으로, 인류의 문화 바탕이 提高되고 정신문명의 정도가 증강되면서 추구되어지는 문제이다. 이러한 豫防爲主 醫學의 관건은 中醫學界의 以後의 교육, 과학연구, 의료실천활동에 달려있으니, 中醫學의 특색을 突出시키고 ‘治未病’의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서 中醫學의 풍모를 재현시킬 수 있고, 醫學의 경박한 풍조를 인도할 수 있다.

關鍵詞 : 內經 聖人 上工 治未病

‘治未病’은 『黃帝內經·素問·四氣調神大論』의 “聖人不治已病, 治未病: 不治已亂, 治未亂. 此之謂也.”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歷代醫家들이 중시해오면서, 지금은 ‘豫防原則’으로 나열이 되어 『中醫基礎理論』 각종 판본의 교재에 삽입이 되어있다. 그러나, 그 개념·내용 및 응용에 대해서 일반적인 소개에 국한되어 있고, 그 意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강조가 되지 않아 깊게 연구한 사람이 적고, 응용방면에 있어서 부족한 현실이다. 그리하여, ‘治未病’의 내용이 승화되고 제고되었다고 말하기

가 어려운 실정이니, 한 세대의 中醫를 담당한 의사로서 심한 遺憾과 심적 괴로움을 느낀다.

一. ‘治未病’하는 者는 ‘聖人’과 ‘上工’이다.

‘治未病’의 이론에 관해 『內經』에서는 모두 3번 나타난다. 『素問·四氣調神大論』에서

는, “聖人不治已病治未病, 不治已亂治未亂, 此之謂也. 夫病已成而后藥之, 亂已成而后治之, 譬猶渴而穿井, 鬪而鑄錐, 不已晚乎!”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평범하면서도 생동감 있게 비유하였고, 聖人は ‘治未病’하고 ‘治已病’하는 자는 聖인이 아님을 들춰내었다. 『刺熱』篇에서는, “病雖未發, 見赤色者刺之, 名曰治未病”의 내용을 제기하면서, ‘未病’의 숨미를 명확히 하였으니, 관건은 ‘未發’에 달려있다. 이것은 이른바 ‘未病先防’의 立論에 근거한 것이다. 『靈樞·逆順』에서는 “上工治未病, 不治已病”이라고 직접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3문단의 내용은 말은 간단하지만 포괄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니, 사람들에게 ‘治未病’하는 사람은 常人·凡人·庸醫가 아니고, ‘聖人’과 ‘上工’임을 제시하고 있다.

‘聖人’에 대해서 『孔傳』에서는 “于事無不通謂之聖”이라 하였고, 『辭海』에서는 “道德智能極高的人”이라 하였고, 『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聖人者, 處天地之和, 從八風之理, 適嗜慾于世俗之間, 無恚嗔之心, 行不欲離于世, 被服章, 舉不欲觀于俗, 外不勞形于事, 內無思想之患, 以恬愉爲務, 以自得爲功, 形體不敝, 精神不散, 亦可以百數”라고 하였고, 『示從容論』에서는 “聖人之治病, 循法守度, 援物比類, 化之冥冥, 循及上下”라고 하였고, 『疏五過論』에서는 “聖人之術, 爲萬民式, 論裁志意, 必有法則, 循經守數, 按循醫事, 爲萬民副 …… 故曰: 聖人之治病也, 必知天地陰陽, 四時經紀, 五藏六府, 雌雄表裏, 刺灸砭石, 毒藥所主”라고 하였으니, 모두 서로 다른 측면에서 ‘聖人’을 타고난 재주를 온전히 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上工’은 『靈樞·邪氣藏府病形』篇에서 “善調尺者, 不待于寸; 善調脈者, 不待于色. 能參合而行之者, 可以爲上工, 上工十全九.”라고 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표현이 모두 10번 나타난다. 그 뜻은 모두 ‘上工’이 四診方法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있고 숙련이 되어 있으

며,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誤診이나 誤治가 적은 高級 의사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치료 효과에 있어서 90% 이상되는 의사임을 설명하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것을 종합해보면, ‘聖人’과 ‘上工’은 학술의 조예가 정밀하고 깊으면서, 高尚한 도덕성과 수양을 갖춘 醫學理論家와 臨床家임을 알 수 있다. ‘聖人’과 ‘上工’은 학술상의 과학성과 기술상의 복잡성 및 意義의 중요성에 있어서 ‘治未病’을 체현해 내었고, 治未病의 어려운 점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이다. ‘治未病’은 현대의 고도로 정밀한 첨단이론과 기술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二. ‘治未病’의 內容

(一) ‘治未病’의 概念과 內容

‘治未病’의 내용을 인식하는 것은, 그 관건은 ‘治未病’의 개념을 해석하는 것이니, 특히 ‘未病’에 대한 인식이 그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未’의 숨미는 매우 많은데, 이것은 ‘不(아니다)’, ‘沒有(아직 아니다)’와 ‘即將(곧, 멀지않아)’으로 해석할 수 있다. 病의 숨미 또한 적지 않은데, 廣義와 狹義의 내용을 함께 아우르고 있다. 廣義의 病은 健康狀態로 나아가는 것을 지칭하는 것이고, 狹義의 病은 구체적인 疾病을 지칭하는데 感冒·腹瀉·行痺·眩暈·不寐 등과 같은 것이다. 治未病의 ‘病’은 廣義와 狹義의 뜻을 가지고 있다: 1. 未病은 機體가 病邪의 侵害를 받지 않은 시기, 즉 健康狀態이다: 2. 病邪가 비록 이미 機體를 侵害하였으나, 아직까지 害를 받지 않은 곳이 있는 것, 즉 外感病(由表及裏)·內傷病(相生傳, 相剋傳) 등의 일정한 傳變規律의 구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病든 상태이다. 총괄하건대, ‘未病’

은 機體가 發病 혹은 傳變의 前期狀態에 處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治는 단순히 醫療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管理·整理·消滅·研究 등의 내용을 함유하고 있으니, 防止의 뜻으로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治未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2개의 방면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1. 疾病發生을 防止하는 것. 2. 疾病의 傳變을 防止하는 것.

(二) ‘治未病’의 原則

1. 질병발생의 방지는 中醫學의 發病觀에서 근거하여야 한다. 正氣不足은 질병발생의 內在인 원인이다. 邪氣의 亢勝은 질병발생의 重要조건이다. 질병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성취하여야 한다: 增強正氣: 躲避邪氣

- (1) 增強正氣 : 中醫學 養生範疇에 속한다. 養生은 生命을 保養하는 것이다. 生命의 體現은 氣, 즉 原氣이니, 邪氣에 대칭해서 正氣라고 한다. 이 正氣는 機體의 生命活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질로 生命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니, 邪氣를 막아내고 몰아내며, 疾病의 발생을 방지하고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疾病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正氣를 增強시켜야 한다. 正氣를 增強시키는 조치는 正氣에 영향을 주는 因素(先天稟賦, 後天調養)에 근거하여 提起하여야 하니, 주된 요점은 다음과 같다: 衣, 食, 住, 行을 적당하게 하고, 良好한 정신상태를 保持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養生을 진행시켜 나감에 있어서의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음식을 조절할 것(定時, 定量, 廣譜, 衛生), 形體를

운동시킬 것(流水不腐, 戶樞不蠹), 起居를 規範있게 할 것(春宜夜臥早起, 廣步于庭, 被髮緩形, 以使志生; 夏宜夜臥早起, 無厭于日, 使志無怒; 秋宜夜臥早起與鷄俱鳴, 使志安寧; 冬宜早臥晚起, 必待于光, 使志若伏若匿, 若有私意, 若已有得), 勞逸을 合理的으로 할 것(久臥, 久坐, 久視, 久行 등의 過勞와 過逸을 禁한다.) 등이다.

- (2) 躲避邪氣 : 『內經』에서는 ‘邪氣發病’ (『素問·金匱真言論』)으로 인식하고 있으니, 疾病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避其毒氣’하여야 한다. 『靈樞·九宮八風』에서 “聖人曰避虛邪之道, 如避矢石然, 邪弗能害, 此之謂也.” 라고 하였으니, 그 조치는 四時를 따르고, 六淫을 避하는 것이다. 六淫은 癘氣로 각각 主하는 시기가 있으니, 春風, 夏熱(暑), 長夏濕, 秋燥, 冬寒이다. 이 四時를 따르고 六淫을 避하는 것이 이른바 ‘虛邪賊風, 避之有時’이다: 飲食의 清潔을 주의하여 病이 입으로부터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藥物로 邪氣를 豫防하고 몰아내는 것은 免疫機能을 높여주는 것이다: 生態環境을 愛護하고, 生態平衡을 保護하여야 한다: 環境衛生을 維持하여 汚染을 방지하여야 한다.

2. 疾病傳變의 防止 : 疾病이 이미 발생하면 각각의 疾病들은 傳變規律이 있으니, 그 規律에 따라서 傳變을 防止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1)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한 深化의 방지 : 外感疾病은 邪氣가 表部를 經유하여 裏部를 향하여 침해한다. “邪風之至, 疾如風雨, 善治者治皮毛, 其次治肌膚, 其次治筋脈, 其次治六府, 其次治五藏, 治五

藏者半死半生也” : 혹은 經을 따라서 傳變한다. “傷寒一日巨陽受之, 二日陽明, 三日少陽, 四日太陰, 五日少陰, 六日厥陰.” : 혹은 衛·氣·營·血의 순서로 傳變한다. : 혹은 三焦의 순서로 傳變한다. 그러므로, 일단 질병이 발생하면 조기 진단·치료를 하여 病邪를 皮毛·太陽經·衛分·上焦에서 저지를 하여 깊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2) 먼저 病邪의 侵襲을 받지 않은 곳을 안정시켜 病位의 확산을 방지한다. : 內傷病도 각각의 傳變規律이 있으니, 혹은 氣血津液을 순서로 하기도 하고, 혹은 陰陽互根互制를 순서로 하기도 하고, 혹은 五行生剋을 순서로 하기도 하며, 혹은 氣機氣化를 순서로 하기도 한다. …… 최종적으로 질병은 모두 局部와 整體, 整體와 局部의 상호 영향으로 體現되게 된다. 때문에 『內經』에서 “定其氣血, 各守其鄉.”이라고 제기하였고, 『難經』과 『金匱要略』에서는 “見肝之病知肝傳脾, 當先實脾”의 원칙을 제기하였다. 그 취지는 모두 病位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는 것이다.

三. ‘治未病’의 의의

(一) 先進性

위에서 서술한바와 같이 『內經』의 작자는 반복해서 ‘治未病’의 중요성을 논증하면서, ‘治未病’을 잘하는 의사를 품격이 높은 의사로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가장 선진적인 醫學思想으로, 현재까지 衛生방면에 있어서 주요 방침이 되어왔고, ‘豫防爲主’(즉, ‘治未病’)의 방면에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미래의 衛生방면

에 있어서의 주요목표는 ‘豫防爲主’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회가 진보되고 과학이 발전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현상으로, 인류의 문화 바탕이 提高되고 정신문명의 정도가 증강되면서 추구되어지는 문제이다. 미국의 圖克森 아리조나주립대학 醫學社會豫測部의 副主任이자, 綜合計劃 主任으로 自然과 豫防醫學작업에 종사하는 安得魯·書爾박사는 그의 近著인 『不治而愈』에서 “의사의 기본적책으로 우선적인 것은 마땅히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병에 걸리지 않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 예방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다.”라고 제기하였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사회 전반적으로 고도로 발달한 국가의 의료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일찍이 2,000년 전에 이미 중국의 의사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의학의 주도적인 사상이 어떤 문제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거듭 서술하고 있다.

그들은 생동감 있게 다음과 같이 제기하고 있다. : “西方에서는 현대의학의 觀點下에 계속해서 질병을 야기하는 外在的인 因素를 변별하여 왔고, 그러한 後 對症治療法을 연구하여 왔다. 항생제의 출현은 本世紀 중엽의 대단한 성과의 典例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이 눈부신 성취는 오히려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分분한 반대를 하게끔 하였다. …… 그러나, 얼마간의 희생을 치르는 것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료수단을 개발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서로 믿어왔다. 그러나 東方에서는, 특히 중국에서는 의학의 본질에 대한 인식에서 우리 서방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중국은 인체 내의 抗病能力을 증강시키는 것을 탐색하여 왔다. 때문에 인체가 어떠한 유해환경에 처해 있어도 모두 질병이 없이 편안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正氣存內, 邪不可干’의 體現이다.

서방 의사의 책에 실려 있는 관점을 크게

인용하는 것은, 절대 서양의 것을 숭배한다거나, 외국에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만 그들의 체험을 빌림으로써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의사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의학의 가장 오래되고, 가장 전형적인 이론은 수천 년 전의 선진적인 이론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숭배되는 신앙이고, 서양 의학의 전문가도 위와 같이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니, 우리가 자긍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다시 설명하자면 『內經』의 ‘治未病’사상은 진실로 학습하고, 이론을 발굴·계승하며, 發揚시키고 創新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국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론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千古의 恨을 남기는 것이다. ‘治未病’의 사상은 『內經』의 과학성과 계승발전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들의 『內經』에 대한 교육과 학습은 날이 갈수록 위축되어 가고 있고, 『內經』을 읽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연구하는 사람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 주요 문제는 우리들 中醫을 연구하는 사람들 내부의 『內經』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二) 科學性

‘科學’은 자연과 사회 및 사유에 관한 지식 체계이니, 이것은 실천경험의 결정체이다. 모든 과학분야는 통상적으로 객관세계의 발전과 정중의 어느 한 단계 혹은 어느 하나의 운동 형식을 연구하는 것이다. 中國 醫藥學은 생명 운동형식을 연구하는 실천경험의 결정체로, 이것은 의학영역의 독특한 생명모순의 계열에 대한 연구를 말미암아 구성된 것으로, 자연과학에 속하며 사회과학·철학과 밀접한 상호 관계를 가지는 생명과학이다. 中國 醫藥學은 생명규율·건강탐구·질병원리의 객관적인 진

리를 제시하면서, 세계를 개조하여 인류의 건강·장수와 사회창조를 위한 충분한 지침이 되고 있다. ‘治未病’은 中醫에서 오랫동안 탐구해온 건강과 장수규율의 실천경험의 總結이자 理論昇華의 결정체로서, 中醫學 이론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素問·刺法論』에서는 五疫의 발생을 방지하는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다: “五疫之至, 皆相染易, 無問大小, 病狀相似, 不施救療, 如何可得不相移易者? …… 不相染者, 正氣存內, 邪不可干, 避其毒氣, …… 又一法, 小金丹方 …… 服十粒, 無疫干也.” 이 문장은 바로 천연두 예방을 성공적으로 이룬 것으로, 中醫學의 ‘治未病’의 科學성을 사실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비록 『內經』의 작자가 “正氣存內, 邪不可干”, “邪之所奏, 其氣必虛”, “邪之所在, 皆爲不足”과 “風雨寒熱不得虛, 邪不能獨傷人, 卒然逢疾風暴雨而不病者, 皆無虛, 故邪不能獨傷人” 등의 正氣가 邪氣에 대항하고 病을 억제한다는 논점을 반복해서 논술하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병을 면치 못하고,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때문에 黃帝도 “余聞百疾之始期也, 必生于風雨寒暑, …… 奇邪淫溢, 不可勝數, 愿聞其故. 夫同時得病, 或病此, 或病彼, 意者天之爲人生風乎, 何其異也?”라고 다시 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답하기를, “夫天之生風者, 非以私百姓也, 其行公平正直, 犯者得之, 避者得無殆, 非求人而人自犯之.” (『靈樞·五變』)라고 하였으니, 그 답변이 매우 일반적이며 소박하여 과학의 깊은 이치를 물어 버린 듯 하다. 때문에 서방의 의사도 똑같은 困惑感을 느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비록 우리들의 신체조직이 매우 정밀하고 치밀하지만 도리어 많은 흰히 드러나는 결점이 있고, 비록 다양한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체는 여전히 傷害를 받아들이기 용이한 곳을 가지고 있다. 비록, 빠르고 정

밀한 회복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신체는 점차 쇠퇴의 길로 변화되어, 중국에는衰竭하게 됨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다윈 이전에는 의사는 부조화를 이루는 기이하게 느껴지는 것에만 대처할 뿐이었고, 작은 희망만이 존재하였을 뿐이었으니, 우리들의 신체가 高深하여 헤아리기 어려운 神의 按排이길 희망하는 것이었다. 혹자는 질병이 우주의 짓궂은 장난이라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夫天之生風者, 非以私百姓也, 其行公平正直) 심지어는 다윈 이후에도 이러한 부조화가 자주 자연 선택적인 弱點 혹은 任性이라고 오인되었다. 현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다윈학에서 제기하였던 전혀 다른 원인을 이용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2,000년 이전의 중국의학과 서로 비교해보면, 중국의학의 생명에 대한 인식, 인간과 환경 관계에 대한 이해, ‘治未病’에 대한 강조 등은 확실히 先進的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것을 비과학적이고 말할 수 있겠는가? 물론, 中醫學에는 ‘進化論’이나 ‘遺傳子論’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상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니, 다만 현대적 표현 방법과 달랐던 것일 뿐이다. “다윈주의의 관점을 따라 의학을 본다면, 다윈주의는 질병을 神學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였고, 과학적인 뜻으로 이르게 하였다. 즉, 질병이란 隨意的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惡에 대한 報應도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질병을 과거의 自然選擇으로 歸源시키고 있다.” 이것이 그가 주장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생존하는 自然遺傳인 것이다. 『內經』에는 이러한 唯物論의인 사상이 많이 있으니, “『靈樞·壽夭剛柔』篇; “人之生也, 有剛有柔, 有弱有強, 有短有長, 有陰有陽.” 『天年』; “人之始生, …… 以母爲基, 以父爲楯”과 같은 것이 이러한 사상이 아니겠는가? 아울러 어떠한 건강부회만 점도 없다.

“최근의 한편의 권위 있는 논문에서는 미국의 70% 이상의 發病率과 死亡率은 가히 모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예방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면서, 예방능력의 확대는 의료비용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충분히 수치가 맞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어찌 미국에만 국한되는 것이겠는가? 어떠한 국가든지 질병발생을 피할 수 있고, 질병에 의한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을 뿐이니, 선진국에서는 질병의 발생과 사망이 적고, 개발도상국가에서는 많을 뿐인 것이다. 질병의 발생과 사망을 감소시키는 일이 경제적인 의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니, 사람들의 형체·정신상의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것이고, 더욱이 건강한 사람의 창조력은 수치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의학이 진보되면서 의료비용의 상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문을 막히게 하였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속박하였으니, 일반사람들은 의료비용을 감히 물어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 수많은 국가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보건비용을 지탱할 수 있을 것인가를 끊임없이 논쟁해 왔지만, 보건 본질의 철학적 화제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다. 의사들은 건강이 어떤 외계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니, …… 건강은 飲食起居가 自然規律과 부합된 결과인 것이다.” (『不治而愈』)

(三) 持久性

眞理는 온 천하에 퍼져 본보기가 되고, 科學은 時間·空間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다. ‘治未病’의 사상은 온 천하에 두루 퍼져 시들지 않는 사상이 될 것이다.

건강만큼 중요한 것은 세상에 많지 않다. ‘你好嗎?’라는 간단한 한 구절의 문안 인사는 禮貌이기도 하지만,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표

현이다. 어떤 사람이 자나깨나 추구하던 사업의 성취에 실패하였거나, 혹은 부모를 잃었거나 친구를 잃은 후, 실의와 절망의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 신체는 여전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건강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需要와 渴求는 영원한 것이다. 과학기술이 진보되고 사회가 발전하고, 인류 문화가 발전하며, 정신문명의 정도가 증강됨에 따라, 병들지 않고 건강한 것이 인생의 많은 내용들 중에서 그 위치가 날로 앞당겨 질 것이니, ‘治未病’의 사상은 고품격의 의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할 책무가 될 것이다.

四. ‘治未病’을 향하여 進軍하자!

‘治未病’은 실천적인 理想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여전히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니, 그 이론은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고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 있어서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람이 생존하고 있는 환경, 즉 자연이 奧妙하고 神秘하고, 生命이 또한 奧妙하고 神秘하여 드러내기가 어려운 까닭이다. 그러나, 인류는 유전자조합의 연구에 있어서 이미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제22번 염색체에 대해서는 완전히 파악을 하였고, 과학자들은 흥분된 눈빛으로 금년에 초보적으로 확정된 완전한 인류 유전자 배열 순서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완전한 유전자 지도는 인체의 유전자 및 이 유전자의 단백질 생산물의 전반적인 정보를 함유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전자 지도에 대한 의문과 감탄은 남아있다. 하물며, 유전자지도의 연구는 과학·윤리·정책적으로 엇갈리

는 면이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인류의 유전자 조합에 대한 연구는 장차 의료과학에 있어서 현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잠복시킬 것이다. 인류의 유전자조합에 대한 연구의 발전에 따라서, 인류사회는 유전자 검사·약물의 유전자조합 연구·유전치료 등의 3代 應用 영역에 있어서 그 전망이 양호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곤경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不治而愈』에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단락이 있으니,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中醫가 사용하는 藥物은 耐性を 만들지 않으니, 中藥은 세균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세균의 進化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中藥은 면역계통 세포의 活性과 效能을 높이고, 환자의 각종 감염에 대항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이지, 세균감염에 대항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내용은 많은 中醫藥 전문가들이 아직 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中藥 治病의 원리, 즉 세균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인체의 전체적인 면을 조화시켜 正氣의 邪氣를 몰아내는 능력·抗病能力·恢復能力을 증강시키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다. 西方의 학자가 이미 中藥은 인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데, 면역계통 세포의 활성화와 효능을 높이는 것이지, 세균감염에 대항하는 능력을 높이는 것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우리는 어째서 ‘治未病’의 사상에 주의를 기울이고 연구를 진행하지 않는가? 이 ‘治未病’의 사상은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인데, 우리가 발굴해 내지 않는다면 누가 발굴해 줄 것인가? 우리가 계승하지 않는다면 누가 계승해 줄 것인가? 우리가 發揚시키지 않는다면 누가 發揚해 줄 것인가? 수년전 일본인들이 큰소리 치기를, “十年後면 중국사람들이 일본에서 中醫를 배우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주장은 中醫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 부인할 수 없는 것이, 기존의 우리

의 발굴·계승·發揚의 成就物이 많이 부족하여,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마음 傷하는 것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니, 갈수록 더욱 걱정이 될 뿐이다.

이상의 원인을 살펴보면, 中醫學界에 지금 이후의 교육과 학습·연구·의료실천의 과정 속에서 中醫學의 특색을 들춰내 내고 '治未病'의 연구에 박차를 가할 것을 건의해 본다. 中醫學理論의 지도아래 中醫學의 '治未病'의 특색을 충분히 發揚한다면 中醫學의 품격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이고, 醫學의 경박한 풍조를 다시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五. 參考資料

1. 辭海 (縮印本) 上海辭書出版社 1979年版
2. 黃帝內經素問 人民衛生出版社 1963年版
3. 靈樞瓊 人民衛生出版社 1963年版
4. 我們爲甚麼生病 [美]R.M. 尼斯 G.C. 威廉斯著 湖南科學技術出版社 1999年
5. 不治而愈 [美]安得魯·書爾(Weil.A) 著 新華出版社 1998年